

한화테크윈, 성능은 기본 믿고 맡길 수 있는 A/S 시스템으로 대형 병원도 안전하게 모니터링



**"한화테크윈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, 믿을 수 있는 A/S 체계를 갖추고 있어
시스템 리뉴얼 때 마다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회사이다"**

- 삼성서울병원 담당자

Challenge

1994년 개원한 '삼성서울병원'은 개원 이래 진료, 연구, 교육, 의료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 의료계의 변화를 선도해 왔으며,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. 본관, 별관, 암 병원, 양성자치료센터로 구성되어 있고, 시설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. 2016년 기준, 직원만 약 7,800여명, 입원병상 1,979개, 일 평균 외래환자 약 8,000명으로 2020년, 세계적 수준의 메디컬 콤플렉스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경쟁력을 끌어올림은 물론, 메디컬·바이오 산업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메디컬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. '삼성서울병원'은 규모적인 면에서 관리해야 할 면적이 넓고,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비 및 하루에 드나드는 환자와 방문객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. 정기적인 시스템 리뉴얼 공사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은 물론이고, 믿고 맡길 수 있는 A/S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.

Solution

각 건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도 및 환자대기실, 치료실, 병실 등에는 Wisenet 라인업인 SND-6084(Wisenet III), SND-L6083R(Wisenet Lite) 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. 두 모델 모두 실내 인테리어를 방해하지 않고 환자들이나 병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소형의 인테리어 돔 타입이며, Full HD 고해상도의 안정적인 영상 압축 전송을 자랑하는 제품이다. 특히, SND-6084는 P-Iris 기능을 지원해 원거리 및 근거리 피사체 모두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, 실내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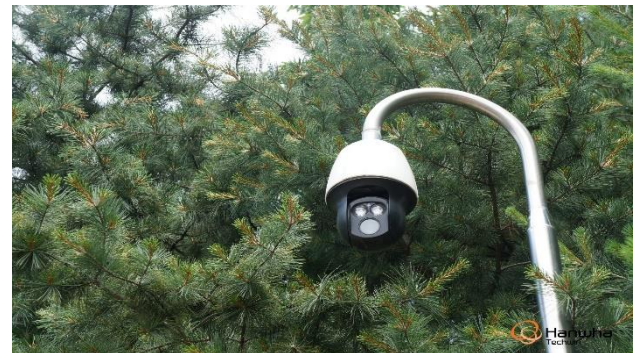
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. SND-L6083R의 경우 복도뷰(hallway view) 기능을 지원해 치료실이나 병실을 오가는 복도 등에 설치가 적합하다. 좁은 통로에 맞춤형 9:16 세로 비율의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상하 감시 영역을 확대하여 필요한 모니터링 영역을 최적화 할 수 있다. 병원 출입구, 회전문을 포함한 건물 로비 등에는 유동 인구가 많기에 넓은 지역을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다. SNP-6320과 SNP-6320RH는 32배 (4.44~142.6mm) 네트워크 카메라로 높은 줌 배율과 렌즈부의 회전 속도가 빨라 해당 지역을 모니터링 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. 특히, SNP-6320RH의 경우, IR LED를 채용하여 지하 주차장 입구 및 다소 외진 건물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빛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지역에서도 피사체 식별이 가능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.

Result

삼성서울병원 담당자는 "한화테크윈 시큐리티 제품은 병원이 개원했을 때부터 사용해왔다. 아날로그 제품 시절부터 시스템을 리뉴얼 할 때마다 한화테크윈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", "병원이 워낙 크고 넓어 직원들도 병원 구조에 익숙해 지는데 수개월이 걸린다. 이런 광범위한 부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. 제품력은 무조건이며 기본적 사양이다. 한화테크윈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, 믿을 수 있는 A/S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시스템 리뉴얼 때 마다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회사이다" 라고 전했다.

**"한화테크윈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, 믿을 수 있는 A/S 체계를 갖추고 있어
시스템 리뉴얼 때 마다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회사이다"**

- 삼성서울병원 담당자



'삼성서울병원' 본관, 별관, 암병동, 응급실, 양성자 치료센터 그리고 미래의학관 등 병원 내 모든 건물에는 **한화테크윈**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. 각각의 제품들은 병원을 드나드는 방문객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병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됐다.